

도시재생사업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학 사례연구: 강점모델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접근

김남숙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 School for Urban Regeneration: A Convergence Approach Based on the Strength Model

Nam-Sook Kim
Professor, Social Welfare, Tongmyong University

요약 쇠퇴하고 노후되는 도시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는 국가단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 삶에 근거를 둔 지역, 즉 마을 중심의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하는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축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S구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일환의 주민대학을 강점모델 기반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위해 몇 가지 경험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문제에 기반을 둔 병리적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지향하는 강점모델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주체적 태도와 주민역량강화를 증진한다. 둘째, 마을 주변의 지역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전공의 융합을 통한 지역 지원과 교류를 모색한다.

주제어 : 도시재생, 주민대학, 주민역량강화, 강점모델, 사례연구, 융합적 접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promote residents' participation as an important key for urban regeneration and enhancing urban competition.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The case of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academy as par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New Ddeul Village Project) in the S district of Busan Metropolitan City was analyzed based on the strength model. Based on the job, this study presented some empirical discussions for a successful community engagement program. First, move away from the pathological model based on regional problems and approach it as a positive and potential-oriented strength model. Second, it is co-prosperity by utilizing the resources of local universities around the village. Third,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y should seek regional support and exchang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college majors.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academy, Residents empowerment, Strength model, Case studies, Convergence approaches

1. 서론

글로벌 시대는 국가 단위보다는 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경쟁의 심화를 강조하고 있으며[1] 한국 역시 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도시관리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 도시만의 문화예술경제복지 등 차별화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다섯 가지 유형으로 '도시재생뉴딜(Urban Regeneration New Deal)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

산업화를 겪은 모든 국가들이 그러하듯, 한국 역시 1990년대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중심을 둔 도시재건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2010년대에 와서는 도시재생에 관심을 두게 되어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도시재생 개념은 쇠퇴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집중하는 협의의 관점과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물리.환경, 경제, 사회.문화의 재활성화라는 광의의 관점이 공존하는데[3] 진정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도시의 거주인들, 즉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참여활동의 주체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주체 그리고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보면 쇠퇴한 도시나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이다[2].

'마을만들기'란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의 번역어로 국내에 회자되면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전에는 지역주민운동, 지역사회운동 등의 명칭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2003년 진안군이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대안 중 하나로 마을만들기를 제시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농촌에서는 농촌인구감소억제와 공동체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모두 '마을'을 만들고 있다[4,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경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

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6].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그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주민의 주인 된 참여를 추진하고자 강점관점에서 설계하고 진행된 주민대학운영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방식(bottom-up)'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자 노력하는 주체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마을변화를 위해서 3년간 주민들과 함께 하였던 인근 대학의 노력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시재생사업의 변화와 대학의 참여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과거의 뉴타운, 합동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지역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추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7].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생활권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골목경제 살리기(국토교통부)' 등 지역커뮤니티에 중점을 두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경우, 도시(urban)단위라기보다는 지역커뮤니티(local community)단위에 중점을 둔 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재생과정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교원과 학생, 그리고 공간, 시설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기관인 대학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8-10].

90년대 이래로 대학 평생교육, 대학생봉사, 운동장 개방 같은 시설개방에 관한 분야가 교육,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 각각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의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또 다른 세대교류의 장과 임파워먼트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11,12].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가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일체 되어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3,14]. 대학에는 지적 인적 자원, 공간 자원 및 시설, 경제 자원 등 자원이 있다. 동시에,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가르침과 연구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인 사명에 의해 발견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학-공동체 제휴를 통해 도시재생 과정에서 대학의 이런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9].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모형을 보고하였다[15]. 지역사회입장에서 대학이 보유한 인적 자원, 공간시설 등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존재하였고[9] 일본의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유치 및 새로운 기능창출이 대학의 생존 전략과제로 대두되었다[16]. 양자의 필요가 맞물려 대학과 지역간 협정이 급격히 늘어나 2007년 일본도시재생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 856곳 중 542(63.6%)이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코하마시립대학교는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커뮤니티활성화, 장수환경 만들기라는 두 가지 목적하에 도시계획 및 재생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적 현장학습을 통해 이론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험공간으로 활용하였다[15].

2.2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한편, 공공시설계획과 도시재생에 주민역량강화(empowerment)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90년대 마을만들기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이전에도 참여디자인형태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것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과정상의 참여디자인(participation design)이었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자발성을 토대로 자신의 삶터와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노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4]. 김상신[17]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은 사실 매우 힘든 점이 많으나 도시재생이 본래적 원칙과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강조하였다.

도시재생과정에서 주민역량강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물리적 공간, 즉 마을)와 학습대상(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계획가와 주민의 소통적 의사소통을 위한 '주민들의 자기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역량강화에 접근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는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 간에 관계의 문제가 공존할 때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8]. 대상지에 대한 학습은 '공간에 대한 설명' - '장소에 대한 이해' - '환경에 대한 결정' 순으로 발달한다. 즉, 계획가는 주민들이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위해 자신 마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장소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한다. 환경학습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결정이 뒤따르게 된다. '관계에 대한 이해'는 계획가와 주민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관계를 설정하고 개인 또는 사회에 대한 태도, 가치, 믿음의 변화를 통해 개인적 역량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역량강화는 집단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인식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이는 다시 지역사회역량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것이 개인의 변화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량강화의 확산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19,20].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 변화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공동체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2.3 도시재생사업과 강점모형

의학, 약학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적응을 방해하는 부적응 요소들, 문제, 결함, 실패 등을 찾아내어 예방하고 해결하는 실천학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병리적 모델을 근간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병리적 모델을 비판하는 강점관점의 개념이 제시된다[21].

강점관점에서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즉, 문제와 약점보다는 강점, 실패보다는 성취, 질병보다는 건강, 결함보다는 현재 지니고 있는 자원을 우선시함으로써 가능성, 능력, 비전, 가치, 희망 등의 긍정적 시각으로 개인의 성장을 돕는 관점이다. Saleebey[22]는 강점관점의 핵심가치로 희망과 가능성, 역량강화, 소속(membership), 회복력(resilience), 치유(healing)와 총체성(wholeness), 대화와 협력, 불신중식(suspension of disbelief)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소속(membership)은 본 연구와 연결하여 깊이 살펴보아야 할 요소이다. 지역사회에,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삶은 소외 그 자체

이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주민으로서의 삶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강점관점에서 추구하는 주민으로서의 지역사회 삶은 위엄과 권한,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주인 된 태도이다. 소속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이 곧 역량강화의 시작이며 주민참여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다.

또한 Fast와 Chapin은 그의 저서[23]에서 강점관점 실천과정을 설명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초기접촉에서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실천과정을 Fig. 1처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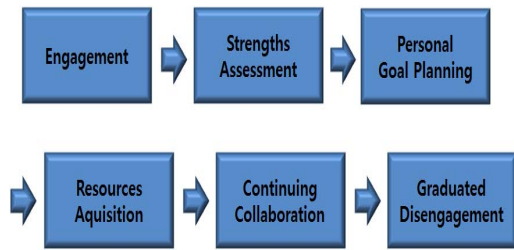


Fig. 1. Practice Process of Strength Model

3. 연구방법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거주문제를 파악하고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과 소방도로 등 생활인프라 개선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만족과 성과는 행정의 수치가 아닌 주민들의 실생활의 만족과 변화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신념에서 연구진들은 대상지 주민들과의 빈번한 접촉의 기회를 가졌고 공식적으로 2016년 1월 20일 새뜰마을사업주민설명회, 2016년 1월 27일 마을리더 교육, 2016년 3월 3일 주민대학개최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의 자리를 만들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면접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주민들과 라포형성을 위해 대상지의 음식점, 생활용품가게, 때로는 주민대표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주민대학이 개최되기 전까지 반구조화되거나 비구조화된 주민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연구진들이 주민들과의 밀도와 빈도 높은 접촉을 시도한 이유는 “왜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 마을에 왔는가?”에 대한 경계

를 늦추어 과거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과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에 보다 무게를 두었던 부분이다. 또한 당시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인식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접촉을 통해 우선 순위의 작업으로 새뜰마을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보를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질적자료는 주민대학 사례연구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귀납의 형태로 명제를 도출하여 이론, 현상의 요약, 문제의 해결방안을 고안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24]. 사례연구는 단일 사회현상과 클라이언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심층적인 조사방법이며 사례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해 면접, 사회력, 개인력분석,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주로 대상자(사례)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묘사하는데 중점을 둔다[25].

본 연구에서는 주민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자료와 새뜰마을사업 진행을 위해 실시된 실거주 638세대 전수 설문조사(응답 558세대)의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26]를 토대로 주민대학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S구의 대상지를 사례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8월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연구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의의를 주민들의 정주생활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지역사회개선에 대한 인식, 참여의지 변화에 대한 과정에 목적성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으로 관찰, 심층면접, 관찰 대상지의 문화와 환경에 몰입하여 관찰 할 수 있는 참여관찰 등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지역특성

연구대상지역은 Fig. 2에서처럼 남항대교가 끝나는 지점으로, 부산광역시 S구 일원으로 총 53,523㎡에 달하는 면적이며 총인구수 1,286명과 세대수는 638세대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5%로 부산시 평균인 13.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마을전수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26]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응답가구의 10.1%(매우만족 2.9%, 약간만족 7.2%)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54점이었다. 거주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로 '전월세 값' 등의 저렴한 주거관련 비용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리한 교통 환경이 2.90점으로 뒤이었던 것에 비해 예술, 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8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2.11점으로 낮은 만족을 보였다. 마을공동체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정부/시/구 등의 공공지원체제미흡(3.72점)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원의 부족(3.66점), 주민의 적극성 부족(3.65점), 정보의 결핍(3.56점), 마을리더의 부재(3.49점), 주민생활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부재(3.44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뜰마을사업(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31명)에 불과해 주민들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노정되었으며 그 핵심으로 주민대학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



Fig. 2. Target Area

4.2 주민대학운영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의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학 설계는 Fast와 Chapin이 제시한 강점관점 단계별 과업을 Table 1처럼 응용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관여단계(Engagement)에서 계획가(전문가)와 참여자(주민)의 협력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새뜰마을설명회, 마을리더교육 그리고 비공식적인 주민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주민대학을 홍보하고 라포형성을 하였으나 본 단계는 매우 공식적으로 8주간의 일정에 서로의 과업을 설명한다. 계획자와 주민 서로의 관심과 경험을 탐색하고 마을에 대한 서로의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둘째, 강점사정단계(Strengths Assessment)에서는 마을의 긍정적인 미래상과 비전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주민들과 마을의 강

Table 1. Strength Based Participation Program of Community Academy

Session	Contents	SBPP
1	Introduce of community school Program <i>"Why we have to gather?"</i>	Engagement
2	To find and to share village treasure <i>"Wandering and discovering my village ina new way"</i>	Strengths Assessment
3	To share vision of village <i>"Guess what would be change in village...Then what have to do"</i>	Personal Goal Planning
4	To visit development villages <i>"What are the successful points to the develop villages?"</i>	Resources Acquisition
5	Vacant houses proposals in village <i>"How to use to vacant houses for village and community (case in Japan)?"</i>	
6	How to repair house <i>"Shall we enroll and be diagnosed to repairing?"</i>	
7	Village management, Making job in village <i>"Get a job and making money, it will lead the village to be plentiful"</i>	Continuing Collaboration
8	Closing ceremony <i>"Who will be empower leader gor the village?"</i>	Graduated Disengagement

점에 기반한 자원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과거와 현재 자원에 대한 기록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반응을 공유한다. 셋째, 개별적 목표계획단계(Personal Goal Planning)로서 주민들이 마을변화를 위해 스스로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제달성 일정과 책임을 구체화하며 지역자원, 도움제공자 등을 확인한다. 넷째, 자원 획득(Resources Acquisition)단계로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에 기초해 다양한 목표와 수단에 대한 대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지속적 협력(Continuing Collaboration) 단계에서는 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부여와 주민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해결과 그 과정에 대한 정기적 피드백을 밝히고 마지막 종결(Graduated Disengagement)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필요가 요구될 시 지속적 도움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그간 단계별 과업을 통해 주민들이 얻게 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 이런 강점모델단계를 담아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참여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교수들이 계획가 및 코디네이터로 참여하여 주민대학(communitiy academy)이 열렸다.

주민대학운영기간은 2016년 3월 17일부터 2016년 5

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19:00부터 21:00까지 8주간 대상지의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민모집은 사전주민설명회, 현수막, 포스터, 브로셔 등을 제작하여 마을 곳곳에 홍보하였다.

주민대학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주차에서는 주민들의 소개와 마을 만들기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경험들을 탐색하고 주민들의 지역변화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그간 3개월을 시간동안 계획가들과의 라포가 형성되어 향후 있을 8주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비추었으나 마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크게 달라질게 있을까요?”
“오기는 왔고 시간을 비워두었지만...우리 마을에 뭐가 있겠습니까?”*

Fig 3에서처럼, 2주차에서는 사회복지학 교수가 주민들에게 미리 마을의 보물들을 살펴보는 미션을 주고 2주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Fig. 3. Strength Assessment for my village

이를 통해 주민들을 자신의 마을,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정보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강점관점 단계별 과업으로는 강점사정단계에 해당되며 개인과 환경의 강점정보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나치고 말았던 옛 마을의 전설과 이야기들을 재발견하여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과 위엄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오래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공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참여주민들의 목소리이다.

“오래되고 낡은 돌담과 골목길이 마을의 부끄러움으로

만 알고 살았는데...40년된 이용원, 미용실, 상회 등이 마을의 힘이라는 것을 몰랐네요.”

“남들이 우리 동네 오면 이제 옛 전당포자리, 불펜공장 자리, 자개가구공장터들이 한때 부자마을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홍물이라고 생각했던 마을우물터, 당산이 이전 마을의 보물로 보입니다.”

“마을이름처럼 마음이라도 서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웃들도 마을변화에 동참하여 그 중요성을 알려야겠어요.”

Fig 4에서처럼, 3주는 향후 만들고 싶은 마을을 서로 논의하면서 커뮤니티센터(마을발전소), 도로, 공동홈, 공동작업장, 도로 등의 위치를 주민들 스스로가 설정함으로써 개별적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다. 주민들 스스로가 정한 우선적 목표와 욕구를 확인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주민들, 전문가들이 과제달성일정과 책임을 구체화한다.



Fig. 4. Personal Goal Planning

4주차는 근거리 지역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경험을 탐방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였고 5주차에는 일본의 빈집재생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건축학과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6주차에는 집수리에 대한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설명하였다. 내용 중에는 집수리신청이 가능한 세대의 조건, 정부지원금범위, 지원내용범위, 집수리신청절차 등이었다.

7주차에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 경제학과 교수가 설명을 하였다. 주민들에게 매우 관심이 높은 내용이었으며 향후 마을 내에 공동작업시설을 만들어 목공사업, 집수리사업단, 카페 등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이로써 4, 5, 6, 7주차에서는 강점관점 실천단계에서 강조하는 ‘자원회득’ 과업을 핵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및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목표에 결합시키고자 설계된 단계이다. 지역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자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점활용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그간 참여했던 주민들과 교수들 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8주간의 주민대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점단계에서 '지속적 협력'과 '종결'의 과정이다.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의지와, 지속적인 전문가집단의 피드백 제공, 갈등 발생 시 그 해결과 과정에 대한 정기적 평가 확인,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지속적 도움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주민은 8주간의 교육을 통해 마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밝혔으며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강좌로 5주차 일본의 빈집재생사례를 꼽았다.

이는 대상주민들에게 그들과 유사한 조건의 일본사례에서 희망, 회복력, 협력 그리고 치유 등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습득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결과로 분석된다.

5. 결론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산업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도시를 경제, 사회, 물리, 환경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의 단위가 과거 도시단위에서 지역커뮤니티 즉, 마을단위로 바뀌고 있다. 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과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거주인들의 주민된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와 관계의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8]. 이를 위해 주민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대인관계의 역량을 높이고자 강점모형을 기반으로 주민대학을 설계, 운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강점을 활용한 주민대학운영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되고 쇠퇴하는 도심활성에 큰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삶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사회활성화의 핵심적 전략은 바로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요청되는데 그 관심을 주민, 지역사회 강점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마을, 지역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 약점, 문제

기반에서 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사회, 마을,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갖기를 강조하여 스스로 주인되는 자세를 배양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안게 되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주민들간의 접촉과 마을의 역사를 공유하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는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무엇보다 이번 연구의 주민대학운영에서 주요한 사항은 인근 대학의 지원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근 대학의 지역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사례를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처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원 중 인적자원, 즉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체계적 주민대학 기획과 운영은 향후 마을만들기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 지역봉사라는 미션 중 지역봉사를 이행하는 것이다. 주민대학이 실시된 이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마을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과 함께하는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대학생봉사단의 지역봉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융합적 접근의 강조다. 도시계획학, 건축학, 건축공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전공자들의 전문적 접근은 주민들의 다차원적 욕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성공의 첩경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대학 내에서 일고 있는 혁신교수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교수법과 매칭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다. 대학생들에게는 각자의 전공에 대한 쓰임새를 지역봉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 점검하게 되며 책임감 있는 예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리라 여긴다. 혹은 그 지역에 인근 해 있는 지역대학간 융합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경중수 외[27]는 충청권 4개 대학이 연합된 대학연합-융합전공모형개발관련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응용한다면 도시재생을 위해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자원봉사영역에서 대학간 연계와 융합된 대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인구감소, 도시쇠퇴, 노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최우선되어야 하는 과업은 주민역량강화이며 이를 위해 주민대학운영이라는 신념으로 본 연구는 진행하였다. 주민대학 설계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점은 주민의 지역환경과 주민들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이며 이를 강점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인 주민 참여변화를 증빙하기 위한 양적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또한 금번 연구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추후 연구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 조직화과정, 대학과 주민조직을 활용한 구체적인 마을만들기에 도전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Y. H. Lee. (2019). Developing a Promotional Design of Pyeongtaek City for the Improvement of its Ima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6), 147-155.
- [2] S. I. Choi. (2019). Th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Types of Service Design for Urban Regeneration.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0(2), 480-491.
- [3] Y. W. Kim. (2008). Paradigm Shift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planning and policy*, 315, 142-154.
- [4] G. U. Lee.(2018). A Study on the Narrative Approach for Maul-mandulgi.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66, 1-26.
- [5] W. S. Nam & S. R. Lee.(2012). The condition of success in making a village. *Issue&Analysis*, 47, 1-25.
- [6]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2019),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molit.go.kr/portal.do>
- [7] T. H. Lee. (2015). Examinations of Meaning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and Their Applications in Regeneration Policy: Focusing on New Deal for Communities Programme in the UK.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86, 139-159.
- [8] C. Y. Kim. (2013).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University-Focusing on Case Studies of Collaboration Planning Program between Local Universities Communities in Japa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4(5), 65-78.
- [9] T. H. Lee, S. E. Park & T. H. Kim. (2016). Urban Regeneration through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in Japan - A Case Study of Yokohama City and Yokohama City University Partnership.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1(1), 57-75.
- [10] J. E. Kim. (2010). A Case Study of Neighborhood Renewal through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 UIC Neighborhood Initiative. *Seoul Study*, 11(3), 69-86.
- [11] C. H. Lee & W. K. Bae.(2007). University-Led Community Revitalization - Focusing on University Facilities Development and Community Planning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6), 89-104.
- [12] J. Y. Hwang. (2018). Analysis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Adult Empowerment Enhanc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245-252.
- [13] C. H. Lee. (2009). A Study on the Regeneration of a University Town through Off-Campus Facilities - A Case Study of Waseda University, Japa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0(2), 43-57.
- [14] C. Y. Kim. (2013).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University - Focusing on Case Studies of Collaboration Planning Program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in Japa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4(5), 65-78.
- [15] Y. J. Bae & Y. R. Kim. (2019). Urban Regenera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in Japan. *PLANNING AND POLICY*, 451, 70-76.
- [16] S. H. Lee. (2017. 9. 9). Campers Town and COC Projects, A Different Look at Local Contributions. *Kyunghee Newspaper*, p.8.
- [17] S. S. Kim, (2019), A Case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of Residents in Korea. *PLANNING AND POLICY*, 453, 80-87.
- [18] G. T. Sim.(2003), Explanation of Space, Understanding of Place and Value of Environment in the Regional Instru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1(3), 17-31.
- [19] S. H. Lee & K. W. Hwang. (1997).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2(5), 169-184.
- [20] J. K. Kim, J. J. Lee & K. W. Hwang. (2011). A Case Study on 'Learning Program of Academy of Urban Planning' for Citizen's Empowerment in Public Facilities Planning Process - Focused on the 2009 Year 'Learning Program of Academy of Urban Planning' in Capital Area.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2(4), 105-125.
- [21] A. Weick, R. C. Rapp, W. P. Sullivan, & W. Kishardt. (1989). A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4(4), 350-369.
- [22] D. Saleebey. (2006). *The Strengths Approach to in Social Work Practice*, D. Ed.,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7(4th ed.), Boston, MA : Allyn & Bacon.
- [23] B. Fast & R. Chapin. (2000). *Strengths-Based Care Management for Older Adults*. Baltimore: Health Professions Pr.
- [24] R. K. Yin.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n. London.
- [25] S. D. Hwang. (2007).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Seoul: Hajisa.

- [26] Seogu. (2016). *New Ddeul Village Project*. Seogu.
- [27] J. S. Kyung & J. H. Kim. (2018). Model Development of Convergence Curriculum by Specialization Area Linkage between Local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251-258.

김 남 숙(Nam-Sook Kim)

[경력]



- 1994년 2월 :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행정학석사)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 2006년 2월 ~ 2009년 8월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09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학제간 융합연구방법론
- E-Mail : welpia0420@tu.ac.kr